

# 바로서는 세월호...4년만에 좌현 드러내



직립 성공예감 세월호 유가족 등이 9일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좌현을 바닥에 대고 누워있는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작업은 10일 세월호를 직립하기 위한 사전 점검과정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 40도 들어올린 예행연습 성공...오늘 오전 9시부터 본격작업

### 기관구역·4층 좌현 등 수색...내달 미수습자 수습 본격화

세월호 직립작업이 10일 진행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는 세월호 직립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목포신항에서 해상크레인으로 선체 각도를 40도까지 들어올리는 예행연습에 성공했으며, 선체 좌현도 4년 만에 공개됐다. 선조위는 이날 예행연습에서 옆으로 누운 세월호를 바로 세우기 위해 와이어(쇠줄)로 뒤에서 끌어당기는 방식을 적용했다. 선조위는 각 선체 부위에 필요한 힘이 정확하게 실릴 수 있도록 와이어 위치와

간격을 정확하게 조정하고 안전성을 점검했다. 선조위는 예행연습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10일 오전 9시부터 4시간 동안 세월호 직립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조위는 선체가 최대한 손상되지 않도록 직립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다. 선조위는 직립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이틀에 걸쳐 안전 보장작업과 내부 지장물 제거 작업을 한 뒤 그동안 살펴볼 수 없었던 기관구역에 대한 현장조사가 나설

계획이다. 선조위 조사관들은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주기관실과 보조기관실, 축계실, 횡추진기실, 스테빌라이저가 있었던 편안전기실 등을 정밀조사한다. 조타기 신호를 배 뒷부분 방향타에 전달하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반쯤 열려 있었던 점, 복원력에 영향을 주는 평형수 탱크 등도 조사한다. 기관구역과 남학생 객실이 있던 4층 선수 좌현을 중심으로 한 미수습자 수습작업도 재개한다. 기관구역은 통상 승객들이 출입하지 않는 곳이지만 선조위는 객실인 3층 에스컬레이터부터 2층 화물칸, 아래층인 기관구

역까지 뚫려 있었고 기관실에서 인공이 발견된 점, 닫혀있어야 할 기관구역의 수밀 격문이 다 열려 있었던 점을 토대로 미수습자 유해 수색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수습작업은 선내 안전 보장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준 선조위원장은 “선체직립 시기가 예상보다 3주정도 빨라졌으며, 직립 작업이 완료되면 미수습자 수색 작업도 3주 후에는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의 약속을 실행한다는 사명으로 미수습자 수습 작업 등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 학교 달라도 추억은 하나...시골학교 통합운동회 늘어

### 학생수 급감에 협동 학교군 공동 프로그램...전남 초교 53% 참여

전남지역 소규모 학교들이 인근 학교와 운동회를 통합 개최하거나 지역사회 참여형 행사를 치르고 있다. 학생수 격감에 따른 싹쓸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9일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887개 초·중·고교 가운데 373곳(42.1%)은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다. 이들 학교는 어린 학생들이 평생 간직할 추억을 쌓을 기회를 주기 위해 통합 운동회를 열고 있다. 지난 1일 전남 나주 체육관에서는 왕곡·반남·공산·동강·양산 등 5개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다. 같은 날 영광 백수·백수초등학교, 고흥 봉래·백양초등학교 등도 연합 운동회를 열었다. 담양지역에서는 지난 3일 ‘만남’이라는 주제를 걸고 한마당 축제를 즐겼다. 담양만덕·남면 초등학교는 두 학교 이름의 첫 글자를 딴 행사였다. 전남 교육현장에서는 학생 수가 적은 운동회, 체험 활동, 축제 등 운영이 어려운 인근 학교끼리 협동 학교군을 편성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내 학교 절반이 넘는 474곳(53.4%)이 협동 학교군에 참여한다. /김형호기자 khh@

전남 교육청은 협동학교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에 6억4천여만원을 편성해 22개 교육지원청과 주관학교에 지원한다. 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도 어린이들의 추억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탠다. 나아가 함께 즐기며 지역 화합을 도모한다. 계주, 줄다리기 등 학부모 경기를 응원하는 아이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행운권 추첨으로 경품을 나누기도 한다. 전남 교육청 관계자는 “지역·학교 간 협동 체계를 구축해서 교육 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작은 학교의 한계를 극복해 학생이 돌아오는 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사고차도 보험 골라 가입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 개시

사고 경력 탓에 자동차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들이 현재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사를 골라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10일부터 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mycaar.kidi.or.kr)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일단 개인용(10인승 이하 개인 소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업무용·영업용은 나중에 확대를 검토한다.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는 최대 11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가입 여부와 보험료를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개인용 보험 1580만대 중 공동인수는 15만대였다. /연합뉴스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3    달뜨기 02:34  
해질 19:25    달지기 13:56

화창  
서해상에 남동진 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2/23	보성	맑음	9/20
목포	맑음	12/19	순천	맑음	11/22
여수	맑음	12/19	영광	맑음	10/20
나주	맑음	9/22	진도	맑음	10/20
완도	맑음	12/21	전주	맑음	11/22
구례	맑음	10/23	군산	맑음	10/19
강진	맑음	10/21	남원	맑음	11/23
해남	맑음	10/20	홍산도	맑음	9/17
장성	맑음	9/22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파고(m)	방향	파고(m)	방향
서해	남부	0.5	남동	0.5	남동
남부	남부	0.5~1.5	남동	0.5~1.5	남동
남해	남부	0.5~1.5	남동	0.5	남동
남해	서부	1.5~2.5	북동	1.0~2.0	북동
남해	서부	1.5~2.5	북동	1.0~2.0	북동

◇생활지수

- 식중독: 관심
- 자외선: 매우높음
- 미세먼지: 보통

◇주간 날씨

날짜	날씨
11(금)	☀️
12(토)	☀️
13(일)	☁️
14(월)	☀️
15(화)	☀️
16(수)	☀️
17(목)	☀️

## 순천지역 아파트 온수서 중금속 초과 검출

망간 기준치 3.8배...市 조사위 구성 조사 착수  
순천시 한 아파트 온수에서 중금속 물질인 망간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시가 조사가 나섰다. 9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이 아파트에서 온수가 탁하게 나온다는 신고가 10여 건 접수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비슷한 신고가 40여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온수를 채수해 순천대 친환경농업센터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망간 함유량이 기준치(0.05mg/ℓ) 3.8배에 해당하는 0.19mg/ℓ로 조사됐다. 시는 17일 관리사무소장 등과 간담회를 열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간다. 보일러 관로 노후 여부나 온수에 쓰이는 물 성분을 조사하고 단지별로 구를 선정해 주 1회 수질을 검사한다. 시 관계자는 “성인은 하루 망간을 4mg/ℓ 까지 음용해도 괜찮지만, 온수 색이 탁해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매일 수치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해외 호텔·항공권 예약 결제 오류 상담 급증

1분기 숙박1074건·항공 865건...각각 3배·2배 늘어  
최근 해외 호텔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숙박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결제 오류나 중복 결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909건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86.5% 늘어난다. 소비자 상담 중 거래 품목이 확인된 4705건을 분석한 결과 ‘숙박’ 관련 상담이 1074건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3배 이상(34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권·항공서비스’ 관련 상담은 865건으로 2배 이상(225.2%) 늘었다. 사업자 소재국 확인이 가능한 1884건(국내 사업자 제외) 가운데 싱가포르가 637건으로 지난해보다 7배 이상(749.3%)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소비자원은 “최종 결제 고지없이 결제가 완료되거나, 오류로 중복 결제된 경우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제 88 회

춘향제

88th Chunhyang Festival

2018. 5. 18. 금 - 5. 22. 화

광한루원 및 요천 일원

http://chunhyang.org

주최·주관 춘향제 춘향제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문화예술위원회, 전라북도, 남원시, 국립민속극단